

# D-day 4월3일, '롯데월드타워 시대' 열린다



▲'서울스카이'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내부



▲6성급 호텔 '시그니엘 서울' 로비



▲미술관3스타 스테이크 레스토랑

신동빈 회장 "희망찬 미래, 화합 불꽃 쏜다" 2일 밤 개장 자축 3만발 초대형 불꽃축제 전망대 '서울스카이' 등 주요시설도 뽐내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의 불꽃을 올리겠다."

4월 3일 공식 오픈하는 서울 잠실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전날인 2일 밤 초대형 불꽃축제를 열어 개장을 자축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보탬이 되고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화합의 불꽃을 올리려고 한다"고 불꽃 축제 추진 배경을 말했다.

2일 밤 9시부터 진행되는 불꽃축제는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서호 일대에서 3만 여 발의 불꽃이 재즈, 팝 등 8곡의 음악에 맞춰 밤하늘을 수놓는다. 총 이벤트 시간은 11분이 넘어 새해 맞이 불꽃 쇼로 유명한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5분),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10분)보다 길다. 불꽃쇼 관람은 석촌호수 수변무대와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 마련한 1만여 석과 석촌호수 일대, 올림픽공원, 한강공원, 독섬유원지, 한강 유람선 등 서울 시내 타워 조망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다. 식전행사로는 잔디광장 인근 특설무대에서 DJ DOC, 홍진영, 다이아(D.I.A) 등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한편 롯데월드타워는 14일 전망대 '서울 스카

이'에 이어 21일에는 스마트 오피스 공간과 6성급 호텔 '시그니엘 서울' 등 타워 내 주요시설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타워 전체 운영을 맡은 롯데물산의 박현철 대표이사는 이날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도시와 소통하는 퍼스트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수직복합도시"라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퍼스트 랜드마크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4조원의 건설비가 들어간 롯데월드타워는 117층부터 123층까지는 전망대 '서울스카이'가 들어서며, 108층부터 114층까지는 1개 층을 모두 사용하는 프라이빗 오피스 '프리미어'가 들어선다. 76층부터 101층은 6성급 럭셔리 호텔을 표방한 '시그니엘서울'이, 42층부터 71층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223세대가 자리 잡는다.

또한 14층부터 38층은 사무공간 '프라이빗 오피스'로 롯데물산이 2월 13일 최초로 19층에 입주했다. 앞으로 롯데그룹의 경영혁신실 및 BU, 롯데캐미칼 본사 등이 14층부터 18층에 입주한다. 이밖에 1층부터 12층은 로비이자 원스탑 리빙이 가능한 '포디움'으로 금융센터, 메디컬센터, 피트니스센터 및 갤러리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기존 롯데월드몰 8층과 9층의 면세점도 확장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전야제 상상도

## 브라질산 닭고기 OUT...대형마트가 나섰다

'부패 닭고기' 파문 일파만파 확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가세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정부가 문제의 브라질 수입업체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며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21일부터 전국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BRF사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매대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경우 정부가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던 20일부터 전 점포 매대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뺐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제품 등에 브라질

산 닭고기를 사용한 편의점들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감안해 생산·발주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CU는 브라질 닭을 사용한 일부 제품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고, 세븐일레븐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의 판매와 발주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브라질 부패 고기 불법 유통 사태에 연루된 현지 업체가 국내에 수출하는 닭고기의 유통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21일 브라질 정부로부터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을 위조한 부패 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체험행사·광고 방영... '갤럭시S8'의 반격

이달 말 공개 앞두고 'G6' 견제 전략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판매도 개시

삼성전자가 이달 말 공개 예정인 '갤럭시S8' 띄우기에 나섰다. 체험행사와 광고 등으로 사전예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논란을 낳았던 '갤럭시노트7 발화사태'에서 벗어나는 한편 앞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G6'를 견제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초 전국적인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내달 7일부터는 사전예약 판매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일부터 새 광고도 시작했다. 방문을 열면 우주가 나타나거나 '알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를 통해 기존 휴대전화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제품임을 암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의 특징점을 추측하는 이벤트도 29일까



삼성전자 '갤럭시S8' 광고.

지 진행한다. 핵심 기능도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의 탑재도 공식화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20일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에 갤럭시S8에 탑재될 인공지능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이 부사장은 "이번 갤럭시 신제품에선 일부 삼성 앱에서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앱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며 "궁극적으로 타사 서비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개발 도구까지 공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명근 기자

Maeil 상하치즈

진정한 맛, 제다슬라이스

상하치즈 더블업 체다슬라이스

## 엠게임 증강현실 게임 '캐치몬' 30일 출시

엠게임은 개발 중인 증강현실(AR) 게임 '캐치몬'(사진)을 30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캐치몬은 AR과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접목해 현실 속 다양한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소환수를 수집·육성하는 모바일게임이다.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근처 이용자 간 근거리 전투 등 소환수 수집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난 2월22일 시작한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8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달 16일부터 시작한 '쉽터 등록 이벤트'에도 6일 동안 700권이 넘는 신청이 쏟아지는 등 관심을 모으



고 있다. 한편 캐치몬은 28일 사전 오픈 테스트를 실시해 네트워크 안정성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출시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는 이용자에게 아이템과 골드, 캐시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명근 기자